202312710 김지훈

문제 인식

1. 우산을 대여할 때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인적정보를 관리대장에 적게 한다. 하지만 양심을 믿고 보증금도 안 받고 빌려주는 것이라 나중에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시흥시 양심우산의 회수율이 50% 정도로 낮은 이유다.

출처 : 농민 신문

2-1. 지난 2017년, 서울시 강남구는 '청렴우산'이라는 이름의 무료 대여 우산을 관내 구청·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비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당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청렴우산'은 누구나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 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비치된 450개의 우산 중 다시 돌아온 것은 겨우 30~40여개. 회수율이 채 10%에도 못미친 것입니다.

2-2. 2018년 겨울에는 서울시 도봉구가 누구나 필요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우산' 120개를 버스정류장에 비치했지만, 주민들이 가져간 우산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산꽂이는 쓰레기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3. 해당 사업의 담당 공무원은 "빌려간 우산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고장나서 버려진 우산을 수리해 양심우산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딱히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원래부터 회수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ZUM 뉴스

자기소개

경력 : 신입

백엔드 개발 원함

현재 (주)아로아소프트에서 Spring 프레임워크 기반 웹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 중